



김경래 저 | 홍성사

#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재찬

책을 펴든 건 기력이 거의 바닥 났을 즈음이었다. 잇따른 출장과 늘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기획 시리즈물, 매일 한두 권씩 내놔야 하는 기사... 11년차 일간지 기자 앞에 건네진 책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김경래 구술/백시열 정리·홍성사)는 나에게 고생한다며 건네는 인사말 같았다. 책장을 넘기기 전까지는,

### 기자 30년 장로 30년

기자 30년, 신문기자 출신인 저자(김경래 장로)는 이제 10년을 갓 넘긴 현직 기자가 우러러봐야 할 대선배다. 직업이 기자라면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경력의 소유자다. 수많은 특종을 터뜨렸고, 정치부장, 외신부장 등 신문사의 핵심 보직을 두루 거쳤다. 무엇보다 '신문사의 꽃' 일간지 편집국장을 지낸 베테랑급 저널리스트다. 대통령부터 필부필부(匹夫匹婦)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이들과 함께 격동의 세월을 기자로 살아온 그의 삶을 마주하노라니 내 자신이 바짝 움츠러드는 느낌이였다.

장로 30년, 그는 부모의 신앙 유산을 슬하의 8남매에 이르기까지 골고루 물려준 북의 통로로 85년의 세월을 살아온 크리스천이다. 책에는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한국교회의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즐비하게 등장한다. 이들 모두가 저자와 신앙을 매개로 깊

은 교제를 나눴던 이들이었다는 사연을 접할 때마다 절로 탄성이 터져 나왔다. 무소불위 권력자에게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용기 내 말하던 저자의 믿음 앞에서 5년차 서리집사는 책장을 넘기는 내내 작아질 수밖에 없었다.

‘허송세월·무위도식·직무유기·위선가장·배은망덕.’

“이력저력 버티어 온 팔십 평생을 돌아보니 이 다섯 가지 성어를 넘나들며 살아왔음을 절감한다.”(pp.18) 올해 여든 중반의 저자가 “나는 인생을 이렇게 살았소”라며 서문(序文)에 고백한 사자성어들은 오히려 저자의 지난 삶을 더욱 금금하게 만들었다.

결론부터 말하면 지난 30년 동안 이어온 기자생활과 더불어 한평생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온 저자의 구술 이야기는 굳이 기자가 아니어도 읽기에 불편함이 없다. 오히려 일제강점기부터 6·25동란, 군부독재 시절과 민주화를 거쳐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의 격동기를 고스란히 건너온 한 크리스천 기자의 삶은 곱씹어볼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세상인과 신앙인 사이에서, 일터와 신앙 사이에서 방황하는 이들이라면 믿음의 반줄을 어떻게 붙들고 살아야 할지, 넌지시 보여주는 지혜서다.

### ‘현장’ 지키기, 기자만의 과제일까

저자는 한국전쟁 당시 군 생활을 하던 중 <뉴욕타임즈> 중군 기자의 모습을 보고 ‘기자’라는 직업을 갖기로 결심한다. 1952년 부산에서 첫 기자 생활을 하면서 언론계 대선배인 오소백 선생으로부터 귀가 났도록 듣는 얘기가 있다. “기자는 현장을 보지 않고는 말하지 말라.” 발로 뛰는 기자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가.

“발로 뛸 수밖에 없었던 경험은 나에게 기자의 사명감과 성취감을 맛보게 해주었고, 30년 동안 언론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되었다.”(pp.31)

2002년 초, 수습기자로 첫 발을 내디딘 필자가 다졌던 각오 역시 “발로 뛰는 기자가 되겠다”였다. 하지만 발품보다는 스마트폰으로 통화하며 인터넷 검색까지 곁들여 팩트(fact)를 얻는데 익숙해져 있다는 고해성사를 할 수밖에 없다. 문명의 이기에 따른 편리함과 효율성에 무게를 둘 수도 있지만 기자 세계에서 오감(五感)을 동원한 ‘현장기자’보다 앞설 수는 없는 법이다. 현장을 지키는 것이 어디 기자에게만 중요한 일일까. 거리를 청소하는 환경미화원부터 소비자의 마음을 잡기 위한 기업의 활동, 국정을 살피는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현장’없는 문제 해결은 없다. ‘현장에 서는 건 한 단계 성숙해지는 인생에 디딤돌을 놓는 일이다.’ 게으른 후배기자가 저자로부터 얻은 첫 번째 교훈이다.

### 시대의 아픔을 품다

저자가 기자생활을 하던 1960~70년대는 언론의 암흑기였다. 한마디로 ‘죽은 기자의 시대’여서 취재원을 만나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다. 특히 당시 정치적 상황에서는 정부비판이나 사회고발 성격의 기사는 엄두조차 내기 힘든 시절이었다.

그러나 저자는 시대를 품었다. 기자의 시선을 권력자가 아닌, 민초의 삶으로 돌렸다. 1960년대 가난과 전쟁을 벌이던 국민의 생활상을 외면하지 않았다. 경향신문 정치부장 시절, 특별취재팀장을 겸하면서 서민의 생활고와 정부 정책의 허실(虛失) 등 사회 문제

를 깊숙이 파고들어 심도있는 기획 기사를 쏟아냈다. 아니나 다를까, 이 기사로 저자는 큰 고초를 겪어야 했다. ‘북의 신문과 방송에 인용돼 적을 이롭게 했다’는 등의 혐의로 그는 계엄선포 이후 구속된 언론인 ‘1호’가 된다. 하지만 그의 골골은 기자정신은 힘이 됐다. 결국 그를 편집국장에 올려놓는다. 당시 43세의 나이로 경향신문 제31대 편집국장에 취임한 것. 그가 편집국장으로 일하던 시절, 한국사회는 바람 잘 날 없던 때였다.

1971년 제 7대 대통령선거와 남북적십자 회담이 시작되었고, 72년에는 7·4남북공동성명 발표에 이어 10월 유신이 단행되었다. 그리고 계엄령... 저자도 “고뇌와 갈등과 분노의 시기였다.”(pp.101)고 고백할 정도였다.

### 유혹을 떨쳐내고 지조를 지키다

어느 조직이든 ‘수장(首長)’에게는 유혹이 따르는 법. 저자에게 다가온 유혹은 치명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편집국장에 취임한지 두 달쯤 지나 박정희 대통령이 그를 불렀다. 청와대에서 같이 일하자는 것이었다.

“결핍하면 기사 문제로 끌려 다녀야 하는 편집국장... 그만두고 청와대 감투나 써볼까. 언론인으로서 자부심을 잃은 지 오래데... 이참에 새로운 일에 도전해 볼까.”(pp.108) 솔직한 심정을 드러낸 저자의 고백에 고개가 끄덕여진다.

요즘 같으면 그리 대단한 일도 아닐 것이다. 현 정권이 출범하면서 청와대에 입성한 언론인 출신만 봐도 이미 다섯 손가락으로 부족하다. 정치계로 입문한 전·현직 언론인을 포함하면 수백 명에 이를 것이다. 그들의 선택은 이미 저자가 고백한 것처럼 그 이유가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일 수 있고, 제 2의 삶을 시작하는 계기가 삼을 수도 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한 봉사’로 여기고 헌신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저자는 자리를 지킨다. 기자의 지조를 버리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이 대목을 읽어가면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저자의 결단 과정이다. 박 대통령으로부터 '자리' 제안을 받은 그가 가장 먼저 찾아갔던 이는 평소 그가 존경하던 함석헌 선생이었다. 그리고 그를 잘 아는 언론계 선배를 찾았고, 이어 '멘토'인 오소백 선배에게 조언을 구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자가 가장 존경하고 따르던 홍종인 선생을 찾았다. 홍 선생의 한마디에 저자는 마음을 굳혔다.

“오마에모까(너마저도 가겠다는 거냐)?”(pp.109)

### 진심의 힘, 멘토의 힘

저자는 그가 존경하고, 그를 아끼는 이들을 늘 가까이 두고 살았다. '믿음의 동반자'로 늘 기도를 아끼지 않았던 그의 아내를 비롯해 스승과 선배, 목회자들이 주를 이뤘다. 인생의 행로에 있어서 중대한 갈림길에 설 때면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겸손함과 신중함이 저자의 몸에 밴 듯했다.

일주일 뒤 저자는 박 대통령을 다시 찾아갔다. 그리고 정중하게 제안을 거절했다. 박 대통령으로서는 자존심이 상할 만했다. 그렇다고 해서 둘 사이의 관계가 틀어지진 않았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신뢰하는 사이가 되었다는 걸 저자와 박 대통령간 오간 편지가 증명하고 있다.

저자는 그 일이 있은 후 박 대통령과 약 3년간 편지를 주고받았다. 그가 박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편지만 40여 통. 한달에 한번 꼴로 답장을 받은 셈이다. 현직 기자가 한 국가의 최고 수반에게 보내는 편지 내용은 어떤 이야기들을 담고 있을까. 10월 유신과 관련한 얘기가 눈길을 끈다.

'지금의 유신은 겉모습만 무리하게 바꾸는 것'이라며 '마음과 영혼까지 새롭게 하는 진정한 유신이 이뤄지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직언했다. (pp.128) 이런 내용에 대해 박 대통령은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는 내용으로 답장을 보내왔다고 한다. 박 대통령의 답장이 40여통이나 이어질 수 있었

던 건 저자의 진심어린 충언이 마음에 와 닿았기 때문이 아닐까.

저자는 만남의 귀재다. 만남은 그의 인생 행로를 바꾸기도 했는데, 특별히 신앙의 멘토가 눈길을 끈다.

“나의 청년기에 믿음의 기초를 만들어 준 분이 한상동 목사라면, 환경직 목사는 나의 장년기에 믿음의 폭과 깊이를 더하도록 이끌어 준 분이랄 할 수 있다.”(pp.207) 이밖에도 박선희·고 옥한흠·김장환·박준서·김진홍·고 하용조·이동원·강병훈 목사를 비롯해 손봉호 교수와 김진경 총장 등 내로라하는 한국교회의 거목들은 그의 인생과 신앙에 풍요로운 울림을 더해줬다.

'원로가 없다'는 탄식이 쏟아지는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을 취재하고 있는 필자 입장에서는 '사람 부자'로 살아온 선배 기자가 부러울 수 밖에 없다.

### 행동하는 믿음으로

저자가 지닌 신앙의 뿌리는 외조부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의 외조부는 1907년 경남 통영 시장터에서 노방전도를 하던 서양인 선교사에게 호통을 치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 서양인 선교사가 저항하지 않고 오히려 더 부드럽고 인자한 태도로 자신을 대하는 것에 감동을 받아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다고 한다.”(pp.181) 가문의 믿음의 씨앗이 외조부였다면 그의 신앙에 그 루터기가 되어준 이는 새벽기도로 하루를 열었던 어머니와 '믿음의 동반자' 아내로 이어진다.

저자의 삶을 읽어 내려가다보면 두 가지 흥미로운 사건이 등장한다. 그리고 그 사건은 '참 신앙인이란 무엇인가', '만약 나라면 저자처럼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을까'라고 자문하게 만든다.

#1. 저자의 나이 서른 중반인 1961년 무렵, 그의 가족이 다니던 흥천 교회가 새 예배당을 신축할 때 사재를 빌렸다. 그런데 이후로 주일예배가 끝나기가 무섭

게 명동의 사채업자들이 교회에 기다리고 있다가 주일 헌금을 송두리째 가져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광경을 볼 때마다 내 마음이 벽에 부딪혔다. 경건해야 할 예배가 돈 때문에 더럽혀진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예배를 해치는 일은 없어야겠다고 생각했다.”(pp.231)

그는 행동으로 옮겼다. 아내와 상의한 뒤 살던 집을 팔았다. 당시 자장면 한그릇에 35원하던 시절, 교회 빛은 270만원이었다. 저자는 집을 판돈 300만원에서 270만원을 빼내 교회에 헌금했다. 그리고 집을 구할 때까지 그의 가족은 2년 동안 예배당 지하실에서 살았다.

#2. 박정희 대통령과의 일화다. 청와대에 '자리'를 마련할테니 함께 일하자는 박 대통령의 제안을 사양하던 날, 저자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박 대통령에게 용기를 내 입을 열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 뺨을 가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저자)

“임자,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뺨이라니?”

(박 대통령)

“그분은 바다 위를 거닐기도 하시고, 장님이 눈도 뜨게 하시고...”(저자)

“그거 예수 아니오, 예수...”(박 대통령)

“예 맞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각하께서도 예수님을 뺨으로 삼으시면 아주 좋으실 겁니다.”(저자) (pp.231)

### 한국교회의 숨은 헌신자로

저자는 한국기독교 100주년을 기념하는 일을 함께 하자는 환경직 목사의 제안에 순종했다. 이를 위해 개인적인 일을 깨끗이 포기했다. 이후에는 양화진이 한국개신교의 성지로 다시 태어나게 만드는 일에도 매진했다. 그 과정에 불거진 법적 소송과 인간적 갈등을 겪은 뒤 그가 꺼낸 고백은 인상적이다.

“주님, 이 선한 싸움에 저를 불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pp.443)

어렵지 않은 말로 자신의 인생을 소박하고 담담하게 구술한 책은 한장 한장 잘 넘어간다. 그의 기사가 실린 40여년 전의 신문과 그가 만난 이들을 사진으로 보는 재미도 있다. 양화진 문제에 대한 내용이 전체의 4분의 1 정도도 다소 많이 차지한 데 대해서는 그만큼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저자의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싶다.

손봉호 서울대 명예교수는 “그를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보다 더 초라한 삶이 됐을 것”이라고 추천사를 썼다.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재단 이사장인 강병훈 목사는 저자에 대해 “정론(正論) 정의(正義) 정도(正道)라는 3정(正)으로 일관한 봉사의 일생”이라고 평가했다.

그들의 찬사에 동의하면서 한마디 덧붙인다면, 고작 450여쪽을 넘겨가면서 만난 저자가 어쩌면 내 인생의 '큰바위얼굴'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것이다. “선배님, 고맙습니다.”



**박재찬** 영남대학교 지역개발학과를 졸업했다. 2002년 국민일보에 입사해 사회·경제·정치부 등을 거쳐 현재 종교부에 서 주요 교단 및 교회연합기관, 기독교민단체 등을 취재하고 있다.